

◆ 14 수능 예비시행 B형 40~42번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은 ㉠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A]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B]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어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싶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C]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갑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이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찻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D]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E]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업동 흑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1920년대 중반에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담한 상황,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이런 점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 ① [A]의 ㉠은 당시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군.
  - ② [C]의 ㉢에는 민중의 생명력이, ㉣에는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함의되어 있군.
  - ③ [B]와 [D]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로 보아, [C]에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도 내재되어 있군.
  - ④ [B]의 ㉡에는 화자의 이상이, [D]의 ㉤에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군.
  - ⑤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B]~[D]에서의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 보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군.

42. '성예꽃'에 대한 화자의 심미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예꽃'은 새벽 차창에 피어나 있어. 화자는 시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② '성예꽃'은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함께 피워 낸 것이야. 화자는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 ③ '성예꽃'은 은밀히 피어나는 것이야. 화자는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④ '성예꽃'에는 누군가의 막막한 한숨이 담겨 있어. 화자는 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에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해.
- ⑤ '성예꽃'의 한 잎을 지우고 화자는 친구를 떠올려. 화자는 회상을 통해 성예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이들이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B]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C]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관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D] 고비사막을 끊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늑을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E]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니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목을 내어맡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바다의 흰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 ③ [C]: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D]: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걸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나)를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 ②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 ③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원목을 내어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 ④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 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대립적 구조를 이용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의 대립이 나타난다.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며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긍정적 대상인 하늘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군.
-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 ③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 ⑤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이육사, 「절정」-

(나)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 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먼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 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싯돌<sup>\*</sup>임을 보라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해집고 입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김남조, 「생명」-

\* 부싯돌: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돌.

3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상징어를 제시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추상적 관념을 시각화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의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6.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계절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읽으니 화자의 상황과 정서에 더 공감할 수 있었다. ㉠ 작품 속 계절적 상황이 '매운'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으니 혹독한 추위가 실감나게 느껴졌고, ㉡ 겨울을 연상시키는 '서릿발'이라는 시어에서는 겨울이 주는 시련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 이러한 겨울의 이미지들이 '북방'과 '고원'이라는 극한적 공간의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것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 화자가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한 발 재겨 디딜 곳'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려는 자세를 본받고 싶어졌다. 또한 ㉤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며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생명이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며 삶의 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또한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을 드러낸다.

- 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겨울보리'의 모습에서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진실'이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오는 모습에서 삶의 진실도 생명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계 몸'을 '추위의 면도날'로 '다듬'는 '겨울 나무'의 모습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자연물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떨어져' '불려 가는' '잎'과 '충진 부싯돌'인 '즐기'의 모습에서 소멸과 생성이라는 자연물의 이중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상한 살을 헤집고 입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p>	}	[A]
<p>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p>	}	[B]
<p>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b>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b></p>	}	[C]
<p>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b>가난한 노래의 씨</b>를 뿌려라</p>		
<p>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p>		

- 이육사, 「광야」 -

\* 광음: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이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

<p>(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b>소녀</b>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b>소년</b>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b>들길</b>이 있다</p>	}	[D]
<p>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p>	}	[E]
<p>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b>잔광</b>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b>별</b>이 뜨는 <b>마을</b>이 있다</p>		

- 박용래, 「울타리 밖」 -

\* 천연히: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이.

43.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원시성을 지닌 태초 광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B]: 인격화된 대상의 행위를 추측하여 광야의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C]: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광야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순환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E]: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위적이지 않은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를 각성하게 하는 존재이며, ㉡은 화자를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은 공간의 황폐함을 심화하는 존재이며, ㉡은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대상이다.
- ③ ㉠은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이며, ㉡은 공동체의 인식 전환을 일으키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며, ㉡은 화자가 애상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이며, ㉡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의 시간 양상은 화자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화자가 미래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시에서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순방향의 흐름을 보인다. 이때 화자는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과거로의 회귀 대신 발전된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화자가 과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과거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화자는 미래에 대한 신뢰 없이 과거의 공간을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화자의 과거 회상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 공간이 존속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가)의 화자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을 통해 발전된 미래를 향한 희망을 확인하여 극복의 자세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화자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③ (나)의 ‘소녀’, ‘소년’, ‘들길’이 존재하는 고향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고향을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나)의 ‘잔광’이 부시고 ‘별’이 뜨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마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나)의 ‘마을’을 ‘있다’로 표현하는 것은 마을의 모습이 존속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겠군.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  
꽃  
이육사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北)쪽 툰드라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망아리가 움작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  
  
한바다 복판 용솨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13.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②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③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⑤ 부드럽하면서도 강한 설득적 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14. (가), (나)의 ‘꽃’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꽃을 입과 동일시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꽃의 외면적인 속성을 강조한다.  
 ③ (가)에서 꽃은 사랑이 없는 세상을 의미한다.  
 ④ (나)에서 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⑤ (나)에서 꽃은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상이다.

15. (가) 시의 3연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보기>와 같았다. 고쳐 쓰기를 통해 얻은 시적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평한 것은? [2점]

\_\_\_\_\_ <보기> \_\_\_\_\_  
 가시는길 발거름마다  
 뿌려노흔 그꽃을  
 고희나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① 어휘를 바꾸니 시적 대상이 바뀌었군.  
 ② 피동 표현을 첨가하니 화자가 바뀌었어.  
 ③ 시행의 길이를 줄여서 고독의 의미를 강조했군.  
 ④ 심상을 다양화하여 자연과의 친화를 보여 주었군.  
 ⑤ 시어를 바꾸고 글자 수를 조절해 운율상의 배려를 했군.

16. (나)에서 시행의 함축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②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③ 눈 속 깊이 꽃망아리가 움작거려  
 ④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⑤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17. (가)와 (나)의 시적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작품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나): 당신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면 절대 가지 말라고 입을 붙잡든지, 아니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미련을 남기지 않고 헤어지든지 했을 것입니다.  
 ② (가): 떠나는 입에게 꽃을 뿌린다는 것도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프면서도 그것을 안으로 삭이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 여인들의 전통적인 정서가 아니던가요?  
 ③ (나): 그런 태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굳은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④ (가): 입이 떠난다는 현실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서도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의 감정만으로 정리하기 힘든 게 바로 인간 아니던가요? 제가 했던 말은 그런 심정의 표현이지요.  
 ⑤ (나):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럴 경우 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곤 합니다.

◆ 07 수능 28~32번

[28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다)

북한산(北漢山) 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28.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29.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30.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맡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 (『육사 시집』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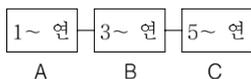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③ ‘낡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31. <보기>는 (나)와 (다)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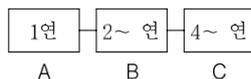
<보 기>

선생님: (나)와 (다)의 기본적인 짜임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나)



(다)



이제 두 시를 자세히 읽고, 시상의 전개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볼까요?

- ① (나)에서 A의 두 연은 ‘하늘’, B의 두 연은 ‘지구’, C의 두 연은 ‘푸른 별’이라는 시어를 통해 각각 결합되고 있어요.
- ② (나)는 A에서 ‘하늘로 팔을 드러내는’ 승고함을, B에서 ‘땅을 디디고 선’ 기쁨을 그리는데, 이것들이 C의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보는’ 거룩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 ③ (나)는 (다)와 달리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더 응축되고 있어요. A에서 C로 갈수록 묘사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의미가 심화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 ④ (다)의 A, B, C는 모두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로 끝나고, ‘겨울’이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요. 반복이 이 시의 특징이에요.
- ⑤ (다)는 (나)와 달리 A는 한 연, B는 두 연, C는 세 연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B와 C는 A의 시상을 상세화하고 있어요.

32.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열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 ④ ‘윈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 ⑤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 13년 3월 고2 A형 31~33번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독자의 상상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영랑의 초기 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내 마음’을 노래했다. 그러나 그의 후기 시를 보면 외부 세계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제 말기라는 식민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1939년에 창작된 「독을 차고」라는 작품 속의 화자는 외부 세계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은 화자의 모습은 곧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는 시인의 자화상으로 볼 수 있다.

- ① ‘새로 뽑은 독’은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이리 승냥이’는 화자가 독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내맡긴 신세’는 화자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에서 부정적 외부 세계에 맞서는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⑤ ‘외로운 혼’은 식민지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로부터 지키고 싶은 시인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33.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에서 2연으로 전개되면서 시상이 반전되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1연에서 벗이 화자에게 한 충고가 구체화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시행에 변화를 주어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 ⑤ 1연에서 4연으로 진행되면서 현재에서 과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